

■ 한국민족운동사에서 본 고하 송진우(3) - 「동아일보 수호를 위한 20일 간의 투쟁」

1921년 주식회사로 재출범한 동아일보는 고하가 사장에 취임한 이후 재정이 안정되고 사세가 확장되면서 크게 발전했다. 그러던 것이 1924년 들어서자 큰 변화에 직면했다. 사회주의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그 내용이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되는 일이 잦아지자 이를 견제하려는 총독부의 압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건을 상세하게 보도하려는 일선 기자들과 총독부의 잦은 행정처분에 대비해 가급적 설화를 줄이려는 경영진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필화 사건과 박춘금의 '식도원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기자들은 개혁운동을 내세워 사장과 경영진 전원의 퇴진을 주장했다.



동아일보가 1924년 1월 '민족적 경륜' 연속 사설을 통해 제창한 정치적 결사는 안창호가 주장해 온 민족운동노선과 맥이 닿는다. 이 흐름은 ①안창호의 홍사단에 가입한 ②이광수를 ③동아일보 사장 송진우가 불러들여 이 사설을 쓰도록 하면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아일보는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물론이고 편집국 간부들까지 퇴진하는 시련을 겪었으며, 5월 14일 이승훈이 제4대 사장에 취임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당시 상황을 <동아일보사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5월 14일 본사 임시주총에서 후임 취재역으로 이인환(승훈), 홍명희, 허헌, 윤홍열, 양원모를 보선하였다. 같은 날 중역 회의에서 이승훈을 동아일보 제 4대 사장으로 선출, 전무·상무도 겸하도록 하였고, 이승훈이 창립한 정주 五山학교의 교장직으로 있던 홍명희를 주필 겸 편집국장에 임명하였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승훈이 동아일보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장하여 사장·전무·상무를 겸하면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五山학교 교장 홍명희를 데려와서 편집권을 맡긴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신문사 사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승훈이 갑자기 사장을 맡게 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홍명희가 五山학교 교장이라는 주장은 아예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홍명희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직에서 물러나고 2년이 지난 1926년 10월 五山학교 교장으로 부임했으며, 그때까지는 五山학교와 아무 인연이 없었다.

그래서 <동아일보사사>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사연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중에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승훈과 홍명희는 임시 주총에서 사장 자리를 놓고 다투던 경쟁자라는 사실이다. 경성지검의 비밀문건 제566호 '동아일보사 주주총회 중역 선임에 관한 건'(1924.5.16.)에는 그 날의 사장 투표 결과를 "홍명희 6,253표, 이승훈 6,235표, 허헌 6,098표, 윤홍열 6,006표"라고 밝히고 있다.

이후 어떻게 이승훈이 사장, 홍명희가 편집국장으로 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 앞에 30대 청년시절 남강문화재단에 근무하면서 《남강 이승훈과 민족운동》(남강문화재단출판부, 1988)이라는 방대한 연구서를 펴낸 적이 있는 필자는 새롭게 진실을 발견하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동안 남강의 자료에는 '박춘금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던 동아일보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승훈을 사장으로 추대한 것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五山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운동가의 요람으로 키워낸 교육자이면서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독립운동가지만, 배운 것이 없어서 늘 불학무식(不學無識)한 사람이라는 말을 달고 입버릇처럼 달고 지내던 이승훈이 왜, 동아일보 사장이 되려했던 말인가? 필자는 끊이지 않는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몇 개의 퍼즐을 펼쳐 놓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았다.

1970년대 대학에서 랑케의 실증주의사학을 배우면서 “역사가는 오로지 사실에 기초해야지, 자기 주관이나 추리력을 발휘해서는 안된다”고 교육 받았던 필자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당장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료가 발견될 때까지 내린 임시처방이었다.

그 당시 상황을 다시금 살펴보면, 동아일보는 1924년 2월 2일자부터 5회에 걸쳐 이광수(1892-1950)의 「민족적 경륜」을 사설로 연재하였다. 그런데 내용 중에 “우리는 조선에서 허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는 말을 두고, 사회주의자들이 앞서서 맹비난을 퍼붓자 사회적으로도 크게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런데다가 4월 3일 총독의 앞잡이 노릇하던 정치 깡패 박춘금(1891-1973)이 저지른 ‘식도원 사건’이라는 언론 테러에 휘말린 동아일보는 창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동아일보의 성가(聲價)는 크게 떨어지고, 사내에서도 젊은 기자들이 나서서 테러사건에 대응하는 사주와 사장의 입장을 비판했다. 기자들은 편집국장 이상협(1893-1957)을 앞세워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사장과 간부 5명, 논설반 기자 1명에 대한 불신임안을 결의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걸잡을 수 없이 발전하자 동아일보 중역회의는 4월 25일 재경 주주총회를 열고 사장 송진우, 전무 신구범, 상무 겸 편집국장 이상협과 취체역인 김성수 장두현의 사표를 제출받아 일괄 수리했다. 이와 함께 경영진 보선을 위한 임시 주총을 5월 14일에 개최하고, 그 동안은 감사역인 허헌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결의했다.

1924년 4월 퇴진한 동아일보 주요 간부와 알림



▲ 송진우의 사장 퇴진을 알린 동아일보 <사고>

5월 14일 열린 동아일보 임시 주총에서는 홍명희(1888-1968), 이승훈(1864-1930), 허헌(1885-1951), 윤홍렬(1893-1947) 사이에 치열한 4파전이 벌어져서 초박빙의 투표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불과 20일의 짧은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지금부터 상상의 나래를 타고 100년 전의 동아일보를 찾아가 보았다.

당시 사장 경선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한 사람은 허헌이었다. 그는 원래 감사역이고 임시주총까지 사장 직무대행을 겸하게 되었다. 게다가 인촌하고도 교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함경북도 명천 출신으로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여 메이지대학 법과를 마친 후에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귀국 후에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동자와 빈민층을 돕던 사회운동가로 널리 알려졌다. 또 사상적으로는 좌익이면서도 우파와도 교제를 나누는 중도좌파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촌은 애초부터 허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 같은 추측은 인촌이 1927년에 허헌을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선임한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고하가 보기에 허헌은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그의 사장 선임을 반대했다. 실제로 허헌은 해방 후에 월북하여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의장과 김일성대학 총장을 지낸 인물이다.

허헌과 함께 사장 경선에 나선 사람이 윤홍렬이다. 그는 대구 출신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메이지대학 법과를 수학했으며 귀국하여 대구청년회에서 활동했다. 1923년 7월 동아일보 대구지국(지국장 서상일)에서 ‘재경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고 서울에서 활동하던 기자였다. 그의 사상적 성향은 알 수가 없지만, 기자시절 남조선 노동연맹회에서 동아일보에 대해 변명하려다가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는 사실과 고하의 오랜 친구로서 후일 한민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서상일(1886-1962)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우파 성향의 인물로 짐작된다.

따라서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허헌은 마흔의 중도좌파 성향의 변호사고, 윤홍렬은 30대 초반의 우파 언론인이다. 두 사람은 모두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했고, 나이는 허헌이 윤홍렬보다 9세 연상이다. 그렇지만 민족진영의 구심점이자 민족언론의 선봉장인 동아일보 사장이 되기에는 두 사람 모두 사회적 경륜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상황이었다.

이때 홍명희가 갑작스럽게 사장 후보로 부상했다. 충북 괴산 출신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타이세이 중학교를 수학하면서, 문단활동을 통해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과 더불어 ‘3대 천재’로 불리던 홍명희다. 유학생할 중 사상적 변민에 빠져 학업을 중단하고 1910년 봄 중도 귀국하였다가 다시 중국과 싱가포르를 전전하면서 방랑생활을 이어갔다. 1918년 귀국 후 고향에서 지내던 홍명희는 1919년 3월 괴산에서의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징역 1년6월의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에 출옥한 후에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시달리자, 1921년 서울로 이주하여 휘문고보와 경신고보에서 교사로 일시 근무하였다. 1923년부터 조선도서주식회사 전무로 근무하다가, 1924년 5월에 갑작스럽게 동아일보 사장에 출마했다.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정관에는 1차로 주총에서 취제역을 선출하면, 2차로 중역회의에서는 취제역 가운데 사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취제역에 선출되려면 100주 이상의 동아일보 주식을 가져야했는데, 홍명희는 무일푼으로 셋집을 전전하고 있었다.

그러면 홍명희는 어떻게 동아일보 사장에 출마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 필자가 추리력을 동원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그가 활동하던 신사상연구회의 도움을 받아 사장에 출마했을 가능성이 높다. 홍명희는 1923년 7월 사회주의단체인 신사상연구회에서 창립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에, 1924년 11월에 신사상연구회가 화요일(火曜會)로 개편이 되자 간부로 활약했다.



▲해방 후 월북하여 부수상을 지낸 홍명희가 김일성과 뱃놀이하고 있다. (1958.5.1.)

이때 신사상연구회는 동아일보 영업국장 홍증식(1895-?)이 주도하고 있었다. 홍증식은 1921년 1월에 서울 청년회를 결성하여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하였고, 1923년부터는 코민테른 극동총국 민족부 산하의 꼬르뷰로(高麗局) 국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동아일보 간부로서 내부 사정에 누구보다 밝았던 홍증식은 신문사를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자신의 주식을 홍명희에게 양도하면서 출마를 권유했다. 홍명희가 사장이 되면 배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동아일보를 통해 사회주의를 적극 전파하려는 생각이었다.

동아일보 사태를 바라보며 기회를 노리는 사회(공산)주의 진영의 입장은 비단 신사상연구회 뿐이 아니었다. 때를 기다리리라도 한 듯이 4월 18일 조선노동연맹회-조선노동대회준비회가 전조선노동총동맹 결성식에서 ‘동아일보 비매 운동’을 선포했다. 그들의 의도는 전국적인 비매 운동의 확산을 통해서 동아일보의 영향력을 소멸시키려는데 있었다.



▲서울 광무대에서 열린 전조선노동총동맹 창립대회(1924.4.18.)

이밖에도 상해파 공산주의자로 조선공산당 창립 준비위원이던 주종건(1895-?) 이봉수(1892-?) 등은 이 기회에 동아일보를 장악할 목적으로 동아일보사 정관에 100주 이상의 주주만 중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의 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다가 정관 개정에 실패하자, 주종건은 100주의 주식을 매수한 후 임시 주총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공산주의세력으로부터 사면초가에 놓인 동아일보를 수호하기 위해 고하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사장도 그렇지만 중역회의도 허헌과 홍명희라는 두 좌파 후보가 취체역으로 들어오면, 그들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우파 진영의 후보가 필요했다. 고심하던 고하의 뇌리에 남강 이승훈이 스쳐지나갔다. 인촌에게도 남강을 내세우자고 설득했다.

이승훈은 3.1운동 때 고하와 손 잡고 전국적인 독립만세운동으로 성사시킨 동지였다. 두 사람은 1919년 2월 10일 계동 김사용의 집에서 처음 만났지만 26살의 나이차와 상관없이 곧바로 의기투합했다. 불과 20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지방의 기독교세력을 규합한 후 천도교, 불교와 접촉하여 세 종교의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독립만세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고하의 기획력과 남강의 추진력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든 성과였다.(이 부분은 다음 회에서 다룰 것이다)

이로 인해 남강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서도 최고 중형인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1922년 7월 22일 최후의 1인으로 가출옥한 3.1운동의 영웅이자 민족지도자로 추앙받던 인물이다. 따라서 동아일보는 남강이 출옥하는 장면을 자세히 소개하고, 다음 날부터 그의 감옥생활에 대한 소감을 담은 「감옥에 대한 여(予)의 권고」를 4회에 걸쳐 특집으로 보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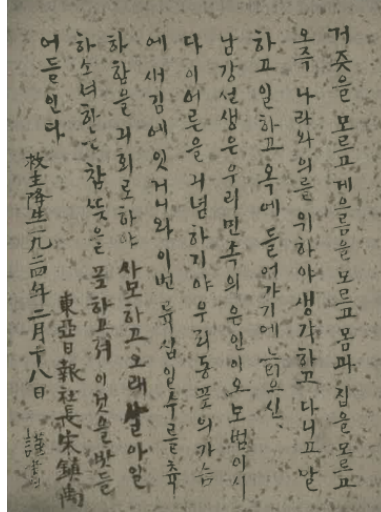
▲남강 이승훈(인환)의 가출옥 소식을 보도한 동아일보(1922.7.22.)

출옥 후에는 평북 정주에 머물며 五山학교 경영에 골몰하면서도, 가끔 서울에 올라와 민립대학설립운동과 연정희 등의 민족운동에도 간여하고 있었다. 남강에 대한 고하의 태도는 깎듯했다. 남강이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기 석 달 전인 2월 18일은 남강의 회갑이었다. 이때 고하는 이 선배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기념품과 함

게 서화첩을 만들어 보냈다. 이 서화첩은 위창 오세창, 청전 이상범 등 당대 명가의 서화로 꾸민 것이었다. 이 서화첩의 화두에는 고하 자신이 다음과 같은 기념사를 한글로 써서 실었다.

"남강 이승훈 선생 회갑 기념문

거짓을 모르고, 게으름을 모르고, 몸과 집을 모르고, 오직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다니고, 말하고, 옥에 들어가기에 늙으신 남강 선생은 우리 민족의 은인이요, 모범이시다. 이 어른을 기념하기에 우리 동포의 가슴에 새김이 있거니와, 이번 육십일 수를 축하함을 기회로 하여 사모하고 오래 살아 일하소서 하는 참 뜻을 표하고자 이것을 받들어 드린다. - 구주강생 1924년 2월 18일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근서"



▲고하가 쓴 남강 이승훈 선생 회갑 기념문

평소 이런 존경과 상호 신뢰가 있던 터라 고하의 부탁을 받은 남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에 필요한 주식은 인촌이 양도했다. 남강은 사회적인 명성이나 경력에서 다른 후보를 압도했다. 며칠을 남겨놓고 뒤늦게 출마했지만, 주총에서 2만4천여 표 중에 1위에 겨우 18표 뒤진 6,235표를 얻었다. 사실상 1위와 다름없었다.

주총에서의 투표 결과가 나오자 중역회의에서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놓고 사장 선임에 나섰다. 홍명희는 경제 활동이라곤 해본 적인 없는 30대의 서생으로서 신문사의 경력을 말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이에 비해 어려서부터 상인으로 자수성가하여 전국적 거상으로 활약한 이승훈은 누구나 인정하는 경제인이었다. 따라서 중역회의에서는 이승훈에게 사장·전무·상무를 겸임하는 경영권 일체를 맡기고, 홍명희는 편집국장 겸 주필로 편집권을 갖게 하는 조정안이 통과된 셈이다. 허헌과 윤홍렬은 취체역으로 선임되었다.

만약 홍명희가 압도적인 표차로 사장에 당선되었다면, 홍증식과 주종건 등의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나섰을 것이다. 그런데 뒤늦게 나타난 남강이 홍명희와 대등한 득표를 한데다가, 두 사람의 자질이나 경력이 워낙 달랐기 때문에 중역회의의 결정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더욱이 홍명희를 사장 후보로 내세웠던 영업국장 홍증식도 주총 이후 양원모로 교체되었다, 일거에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낸 것이다. 남강의 출마는 그야말로 고하가 생각해낸 ‘신의 한 수’였다.

임시 주총 결과 김성수는 동아일보 경영권을 수호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교훈도 많았다. 동아일보를 장악하려는 공산주의세력의 공격은 집요했지만, 그에 비해 김성수의 경영권은 너무나 취약했다. 동아일보의 1대 주인인 김성수, 당시 기준으로 김성수의 소유지분은 6.7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동아일보 사장 선거에서도 김성수가 남강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득표자는 홍명희였다.

또 기자들의 개혁운동에 동조하면서 고하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던 이상협은 신석우와 손을 잡고 동아일보 발행권을 인수하려다가 실패하는 일이 빚어졌다. 이 같은 사건들을 겪고 난 김성수 형제는 7월 22일 무려 950주를 대량 매수했다. 이로 인해 김성수 측의 지분이 2배로 늘어나자, 9월 10일 중역회의에서는 김성수를 고문으로 추대했다.

곧이어 열린 10월 주총에서는 김성수가 사장에 선출되었고, 고하와 남강은 고문으로 추대했다. 고하에게는 동아일보에 복귀하는 자리였고, 남강에게는 그동안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영예롭게 퇴진하는 자리였다. 이후에도 김성수 일가는 계속 주식을 매집한 결과, 1927년에는 3형제의 지분이 30.9%로 증가했다. 임정엽 등의 우호지분을 합치면 명실상부한 동아일보 사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한편 남강에게 경영권을 주고 편집국장 겸 주필로 편집권을 갖게 된 홍명희는 구연홍 조동호 박헌영 임원근 허정숙 등을 기자로 입사시키고, 그 가운데 이봉수와 조동호를 논설반에 배치했다. 그가 영입한 인사 중에서 위당 정인보를 제외한 전원이 신사상연구회였다. 개혁운동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나름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개혁을 부르짖던 주체는 소수의 기자를 제외하면 외부의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때마침 동아일보 인수에 실패한 신석우가 조선일보를 인수하자 개혁운동에 가담했던 기자들이 그곳으로 옮겨갔다.

고하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홍명희를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고립무임이 된 홍명희는 1925년 4월 동아일보를 떠나 시대일보로 옮겼다. 그 자리에 고하가 주필로 복귀함으로써, 공산주의 세력의 장악 시도는 1년 만에 실패로 끝이 났다. 고하가 동아일보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벌인 20일 간의 투쟁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는 순간이었다.

당시 동아일보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고하와 치열하게 다투던 인물들은 <아래 표>와 같다. 모두 쟁쟁한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고하의 '동아일보 수호를 위한 20일간의 투쟁'은 단순한 동아일보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한국민족운동사에서 처음 경험한 좌(공산주의세력), 우(민족주의세력)의 첨예한 대결이다. 고하는 그 대결의 승리자였다.

성명	연령	동아일보 직책	일제강점기(해방 후) 주요 경력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요 경력
허헌	39	취체역(이사)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남로당 초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일성대학 총장
홍명희	36	편집국장	시대일보 사장, 조선문학가동맹 집행위원장	내각 부수상,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
홍증식	29	영업국장	고려공산청년연합회, 중앙집행위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장, 선전부장
주종건	29	주주	고려공산당 간부,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사망(1935)

<에필로그>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고하 송진우, 남강 이승훈, 벽초 홍명희의 관계는 특별하다. 1924년 2월 18일 남강이 회갑을 맞이하자, 고하는 축하하는 서화첩을 만들었다. 이때 고하의 부탁을 받고 정주까지 서화첩을 전달한 이가 벽초 홍명희였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동아일보 사장 선거에서 세 사람은 치열한 대결을 벌였다. 또다시 2년이 지난 1926년 10월 언론계를 떠난 벽초는 평북 정주로 남강을 찾아가 五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다. 서로 다른 그들을 연결해 준 것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집념이었다.